

PLATINUM

Top 1%

2020
ecovadis
Sustainability
Rating

이그선드 페이퍼보드의 스웨덴 제지 공장이 에코바디스가 평가한 65,000여 개 기업 중에서 최고 등급으로 뽑혔다. 이 제지 공장은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에만 주어지는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

Invercote(인버코트), 에코바디스 플래티넘 등급 획득

업계를 선도하는 페이퍼보드 제품 Invercote(인버코트)가 생산되는 스웨덴 이그선드 소재의 이그선드 페이퍼보드 제지 공장이 에코바디스로부터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 에코바디스는 200개가 넘는 영역에서 전 세계 160개국 65,000여 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 기관이다.

2020년, 에코바디스는 메달 수여 기준을 변경해 평가 대상 기업 중 가장 높은 스코어링을 획득한 기업에 수여하는 플래티넘 메달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그선드 스웨덴 제지 공장이 획득한 플래티넘 등급은 평가를 받은 기업 전체에서 상위 1% 기업에만 수여된다.

이그선드 페이퍼보드의 지속 가능성 책임자 요한 그라노스(Johan Granås)는 “플래티넘 등급 획득은 이그선드가 탄탄한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고객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제품의 탁월한 품질뿐 아니라 그 품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된다는 사실, 그 신뢰를 고객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그선드 제지 공장에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비용이 투자됐다. 하지만 이 제지 공장은 첨단 설비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라노스는 “제아무리 설비가 현대적이라든가 최종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그선드는 현장에서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환경적 목표를 수립했다. 이들이 생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화석

연료 사용량이 1년 만에 거의 50% 가까이 절감되었다”라고 설명한다.

요한 그라노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이그선드가 보여준 혁신적인 조치에 매우 감복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을 끝맺는다.

이그선드 페이퍼보드는 스웨덴 산림 기업 홀멘(Holmen) 산하의 브랜드이다. 홀멘 그룹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지속 가능성 지표 부문에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 100대 기업에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이그선드 페이퍼보드의 지속 가능성 책임자 요한 그라노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이그선드가 보여준 혁신적인 조치에 매우 감복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한다.